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56,1.6-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1,13-15.29-3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5,21-28

영성체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성가 | 입당 45 예물준비 25(211)
영성체 181(153) 파견 77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도로시 다비스 영원한 안식을 위해
- 김중배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 박금련 데레사 영혼을 위하여
- 성하천 안젤로
- 이남석 베드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생미사 지향

- 윤숙경 마리아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이서원 마리로사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손성연 가브리엘라, 황태준 니콜라스의 필요한 은총을 위하여
- 정민영 글라라 결혼 & 축일 축하
- 김윤지 세레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8월 16일	장혜윤	국민준	민덕미	국민준 민덕미	김종선 이영혜	김수현 한서희
8월 23일	김진섭	강호영	전푸름	강호영 전푸름	이정현 백이백	김도이 김도율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7년 달력 광고비 납부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광고를 신청하신 분들은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납부처: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2026년 하반기 청년피정

주제: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일시: 9/18(금) - 9/20(주일) (2박 3일)

장소: Semin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참가비: \$330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함께하는 성경읽기: 마르코복음

기간: 9/8(화) - 12/8(화)

시간/장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담당: Sr. 마리루시

신청마감: 8월 30일(주일)까지. 선착순 마감(12명)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시간/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본당행사일정에 따라 장소 변동 가능)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 세례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견진성사를 이미 받은 분들 중 대부/대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646-832-7397(Sr. 마리루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모집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신청 마감: 9월 13일(주일)까지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룸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 이탈리아 성지 순례 >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일 (9박 10일)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영적 지도: 이윤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

오늘의 말씀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시우 알렉시오
(1783-1816)



김시우 알렉시오(1783~1816)는 충청도 청양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른쪽 몸이 마비된 반신불수인 탓에 혼인하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일찍 천주교를 받아들여 누이와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교회 서적을 필사해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서 교우들이 체포되자, 포졸들에게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병신이라서 잡

아가지 않는군요?"라고 말하며 자신도 신자임을 밝히고 함께 체포되기를 원했다.

안동과 대구에서 문초를 받는 동안에도 교리를 전파하였고, 감사에게까지 신앙을 권할 정도였다. 이에 감사는 그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턱을 부수라 명령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옥에서 『칠극』과 묵주기도를 외웠으며, 교회 서적을 나누어 준 교우들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턱의 상처와 굶주림으로 1816년, 33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6, 가해, 2026. 08. 16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필러,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저를 도와주세요



방교원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 예수고난회

며칠 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 무싸)>라는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동만’은 자신의 내적 불안과 좌절감을 끊임없는 험담과 악담과 악플로 풀어냅니다. 여자 주인공 ‘은아’는 능력이 뛰어난 기획자이지만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 위치’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에 그들의 감정 상태가 색깔과 문자로 표시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빨간색, 마음이 안정적일 때는 초록색으로. 그런데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때가 있습니다. 동만은 자살하려는 형을 끌어내렸을 때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뒤엉킨 감정 상태였을 때, 은아는 아홉 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외로움과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 찼을 때 ‘알 수 없음’이라 뜨고, 그 순간 그들이 바랐던 것은 ‘도와줘.’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귀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귀 들린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던 엄마. 딸이 자기 몸을 할퀴고 해치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 몸이 아픈 것 같았던 엄마. 엄마는 그런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며, 병자들을 낫게 해 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그분이 앞에서 계신 겁니다. 얼마나 설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싸늘한 냉대와 매몰찬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아지만도 못한 저를 좀 봐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치 있고 쓸모 있으며 힘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지나야 하는 때가 있고, 활짝 피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슬픔보다 더 처절하고 절망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청할 사람도 없고, 깊고 어두운 계곡을 바라보며 낭떠러지에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도와줘.”일 겁니다. 그것도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자비로운 분, 사랑으로 똬똬 뭉쳐진 분, 바로 그분이 이 작은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림 독상

비상구 | “나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시편 23.4)라고 썼던 시편 저자의 고백과, “희망이 없어도 희망 하며”(로마 4.18)라는 말을 남겼던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읊조려 봅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희망의 비상구이기에, 찾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만이 그 길을 아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이 은총의 통로임을 깨닫고....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7호, 2026년 8월 16일(가해))